

● 한우협회, 농협안심축산분사와 ● 한우유통산업 발전 업무협약



한우농가의 소득증진과 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해 한우협회와 농협이 손을 맞잡았다.

3월 9일 전국한우협회(회장 김홍길)와 농협안심축산분사(사장 윤효진)는 한우유통산업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최근 도축비 인상과 관련해 양 기관이 서로 다른 의견이 있었으나 한우 유통산업 발전이라는 큰 틀 아래 한우농가와 소비자 모두를 위해 손을 잡은 것이다.

상호협력에 근간한 이번 협약은 산지조달 확대를 위해 계통 생축장 한우는 농가와 경쟁을 자제하고 산지출하 적극 유도, 공판장 출하의 품질제고를 통한 가격지지를 위해 한우농가의 우수 축 출하에 상호 적극 협력, 축산물 유통의 새로운 패러다임인 사물인터넷에 기반한 'IoT 식육스마트판매 활성화' 통한 유통비용 절감, 한우고기 소비 확대를 통한 한우자금을 제고 등의 내용을 담았다.

관계자에 따르면 "수입축산물의 국내 시장 잠식에 따른 한우 자금을 제고를 위한 노력이 절박하다"며 "생산자 단체인 양기관이 발전적 협력관계를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우농가의 이익 증대와 한우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한우자조금, 정동극장과 함께 ● 문화마케팅 나선다



우리 전통문화와 한우가 만났다!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민경천)가 한우의 우수성을 알리고, 소비 확대를 위해 전통예술 공연장 정동극장과 함께 문화마케팅에 본격 나섰다.

한우자조금이 정동극장 전통공연, '궁:장녹수전'의 관람객 대상으로 한우 우수성 알리기에 나선 것이다. 이 날 한우자조금은 정동극장에서 공연 관람을 위해 공연장을 찾은 관람객을 대상으로 한우 채끝 샐러드, 한우 스테이크 등 다양한 한우 메뉴를 선보이고, 시식회를 여는 등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했다. 한편, 앞으로 한우자조금은 정동극장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공연과 연계해 관람객을 대상으로 할인 이벤트와 각종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이를 통해 한우자조금은 소비자 접점을 보다 강화할 계획이다. 또 국내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우의 우수성을 알려 한우의 세계화를 위한 수출 홍보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 한돈협회, 돼지도체 등급별 정산 ● 전면 확대 시행을 위한 공동 선언



대한한돈협회(회장 하태식)와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회장 김용철)는 3월 23일 서초구 소재 제2축산회관 대회의실에서 '돼지도체 등급별 정산 전면 확대 시행을 위한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번 공동선언은 대한한돈협회와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 양 협회가 2015년 7월 30일 체결한 '돼지가격 정산기준 등급제 전환 협약서'와 2015년 12월 9일 양돈농협이 체결한 '돼지가격 정산기준 등급제 전환 협약서'에 따른 돼지도체 등급별 정산 전면 확대 시행을 위해 협력키로 하고 공동선언을 발표한 것이다.

이번 공동선언의 주요 내용은 '양 협회는 돼지고기의 가격안정 및 품질향상을 위해 2018년 4월 2일부터 '돼지도체 성별·등급별 정산'이 전국적으로 전면 확대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 추진한다. 양 협회는 등급별정산 전면 확대 시행을 위해 농가나 육가공업체 등에 대한 지도·교육·홍보는 물론, 등급제 관련 정보교류 등 상호 노력한다.' 등이다.

● 한돈자조금, 남산걷기대회 ● 한돈과 함께 건강-행복-추억을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하태식)가 진행한 '2018 한돈과 함께하는 남산걷기대회'가 3월 7일 남산백범광장에서 성황리에 종료됐다.

한돈자조금 하태식 위원장은 무대 인사를 통해 "대한민국 돼지고기 한돈과 함께 봄날 벚꽃을 함께 즐기며, 건강과 행복, 추억까지 함께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며 한돈의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했다.

이날 행사는 많은 시민들이 남산 백범광장에서 집결해 남산 둘레길 6km코스를 완주했다. 걷기 행사 전에는 한돈 돈가스 무료 사식행사, 한돈 부위 맞추기를 비롯해 한도니가 선물하는 우리가족 추억한 장 이벤트, 캘리그래피 이벤트 등 다양한 이벤트가 진행됐으며 한돈 공식 온라인쇼핑몰 '한돈몰' 할인권과 한돈자조금 달력이 함께 제공됐다.

걷기대회를 완주한 참가자 대상으로는 행운권 추첨을 통해 '한돈 선물세트' 등 풍성한 경품 행사도 진행했다.

● 낙농육우협회, 2018년도 낙농목장 나무심기 캠페인 실시



한국낙농육우협회(회장 이승호)는 연말이 올해로 4년째 낙농목장 나무심기 캠페인을 전개하여 낙농가들의 나무심기 실천을 확대해나가고 있다. 4월 식목의 달을 1주일 앞둔 지난 3월 28일 동북목장(경기 이천에서 2018 낙농목장 나무심기 캠페인 기념식재 행사를 개최했다. 특히 올해 낙농목장 나무심기 캠페인은 농식품부가 전 축종 단위로 확대 추진하는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 범축산인 나무심기' 행사기간 중 전개됨으로써 축산인 전체가 축산환경 개선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분위기 속에 낙농가들의 실천의지를 돋우는 계기가 되어 그 의미를 더했다.

이승호 협회장은 "미허가축사 문제들과 더불어 난개발로 인한 일반인들의 유입증가로 민원과 같은 각종 마찰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축산인들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며, "농가 스스로 이 같은 사회적 변화에 대비해 나가자는 취지에서 협회는 깨끗한 목장 가꾸기 운동 선포를 통해 사육환경의 청결·위생과 경관조성을 선도해왔듯이, 전 축산농가 모두가 축산환경 개선에 대한 인식의 전환과 실질적인 동참으로 축산 이미지 개선에 크게 일조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 우유자조금, 우유사랑 상품권 연말까지 시범사업 추진

우유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이승호)는 4월부터 우유 소비기반 확대방안의 하나로 우유사랑 상품권을 시범 출시한다고 밝혔다.

우유사랑 상품권은 기프트카드와 모바일쿠폰 등 2가지 형태로 발행되는데, 현재 1만·3만·5만원권 세종류를 검토 중이다.

유제품을 생산하는 전국의 목장 100여곳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목장 캐시'를 컴퓨터나 전화로 편리하게 주고받을 수 있으며, 시간과 장소에 제약 없이 구매가 가능하다. 또 별도의 등록과정 없이도 즉시 이용할 수 있다. 이 사업은 우선 우유자조금으로 추진된다. 관계자는 "우유 소비촉진 행사 때 요구르트 제조기 등 기존의 사은품 대신 상품권을 참가자들에게 나눠줘 실질적인 고객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단순히 우유 소비만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목장의 유제품을 실제로 구입해 맛볼 기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소비 저변을 넓혀나가겠다는 구상이다.

우유자조금관리위원회는 올 연말까지 시범사업을 추진한 뒤 성과가 좋으면 가맹점인 목장에서 상품권을 판매하는 단계까지 점차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승호 위원장은 "상품권사업이 활성화되면 우유 소비층이 확대돼 낙농가의 소득증대에도 큰 보탬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계협회, 산란계 도태 자구책 남아도는 계란 정부수매 요구

양계협회는 최근 계란값이 폭락하자 산란계 850만 마리를 도태하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했다. 협회는 양계 농장들이 자구책을 시행하는 대신 정부에 현재 남아도는 계란을 수매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지난해 12월 기준 7,271만마리에 이르는 산란계 사육규모가 적정 규모보다 1,000만마리 정도 많다고 보고 있다. 이 때문에 계란 가격이 급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농산물유통정보 카미스(KAMIS)에 따르면 3월 27일 기준 계란 한판(특란, 30개) 소매가격은 4,606원으로 평년(5,896원)보다 21.9%나 하락했다. 1년 전(7,349원)과 비교하면 37.3%나 내렸다. 양계협회는 사육마릿수 10만마리 이상 농가에 대해서만 도태를 진행하되 지난 겨울 조류 인플루엔자(AI) 피해를 입어 그동안 수입이 없었던 양계농가는 도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번 도태에 들어가는 비용은 100억여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협회는 이 같은 자구 노력을 진행하는 대가로 농식품부에 시중에 남는 계란을 사들여 가공용 등으로 비축해주길 요구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당장의 재정 투입보다는 산란계 도태로 사육마릿수가 줄어들면 계란값 반등이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따라 정부는 농협을 통해 소비촉진 활동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수급 조절을 유도하고 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대표자회의 제6대 문정진 회장 추대



축산관련단체협의회(이하 축단협)는 3월 27일 제2 축산회관 대회의실에서 제1차 정기 대표자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2017년 사업실적 및 수입·지출 결산을 승인했고, 제6대 축단협 회장에 한국토종닭협회 문정진 회장을 추대했다. 또한, 미허가 축사, 청탁금지법, 한미 FTA 재협상 등 축산업 당면과제에 대해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하고, 2018년에도 축산 규제, 시장 개방 등 축산업을 위협하는 현안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아울러 긴박한 현안과제에 조직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축종별 단체, 유통분야, 사료, 동물약품, 정책분야 등 분과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해 논의했다. 문정진 회장은 "축산 현안이 산적해 있지만 빠른 시간 내에 제1차 대표자회의를 개최하여 조직, 회칙 등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고, 지속 발전 가능한 축산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행동하겠다"고 밝혔다.